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17화)

# 무수한 죽음의 고비 넘자 강철보다 강한 심령으로 변해

2절: 6.25전쟁 중에 있었던 무서운 연단

- 6) 총살당하다
- 7) 도굴생활
- 8) 대동군 치안대장으로 추대되다
- 9) 신양리 형무소에 재수감되다
- 10) 인고의 나날들
- 11) 거제도 포로수용소 생활
- 12) 반공포로를 석방하라
- 가. 공산포로와 반공포로를 분리수용함
- 나. 반공포로 12만 명의 대표로 답사
- 13) 석방 후 그리운 고향으로

## 12) 반공포로를 석방하라 나. 반공포로 12만 명의 대표로 답사

수용소 정화작업을 성공리에 끝마치고 나서, 1952년 6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거제도에 있는 친공 포로만 남게 하고 반공 포로는 육지로 이동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생지옥과 같은 거제도 수용소를 떠난 날, 엘에스티 선상에는 온통 눈물바다로 화했습니다. 환희와 오열의 눈물을 흘리는 포로들은 해방감으로 “대한민국 만세” 하고 소리 높여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포로 아닌 포로를 석방하라, 반공 포로 석방하라’ 하는 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헬서를 써서 이승만 대통령과 국회의장, 유엔 등에 제출하였는데, 이 건의가 관철되어 마침내 정부에서 반공포로를 석방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반공

포로 석방 환영식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요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경북 영천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환영사에 이어, 반공포로 12만 명의 대표로 일곱째 천사가 답사를 하였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연설문을 손수 작성하여 그 동안 생생히 체험했던 공산주의의 악랄함을 전세계에 폭로하였습니다. 포로가 아닌 20살의 젊은 대학생이 인민군에게 죽을 때까지 매를 맞고 이북으로 끌려가면서 당한 고초와 설움, 총살 집행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거제도 포로수용소까지 가서 받은 약소민족의 설움, 수용소 내에서 수없는 폭동과 야비구한 속에서 계속되는 죽음의 고비를 당해야 했던 기막힌 내용을 시간의 제약으로 대강만 열거하여 원고에 담아 읽어내려 갔는데도 그곳에 참석한 귀빈들은 물론 포로들도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것입니다.

이는 한 포로의 설움이면서, 또한 한국 민족 전체의 비극을 대변한 것으로서 지금도 그 연설문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서 보존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철조망을 넘어서”라는 전쟁영화도 일곱째 천사를 주인공으로 하여 제작된 반공영화였던 것입니다.

## 13) 석방 후 그리운 고향으로

일곱째 천사는 경북 영천에서 반공포로 제1번으로 석방되어 고향 김포에



반공포로들이 포로수용소를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에게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갈 수 있었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온다는 통보를 받고 김포군청 광장에서 거행된 석방 환영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아들을 앞에 놓고도 못 알아보시고 “우리 아들이 어디 있나?” 하고 두리번거리며 찾는 것이었습니다.

6.25전쟁의 시련 속에서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고 넘어 단련되고 단련된 몸이라 언뜻 보아서는 못 알아 볼 정도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곱째 천사는 집에 와서도 어른들로부터 “너 눈동자가 바뀌었구나.”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고비, 사신의 고비를 수없이 넘고 보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어린애로 보여졌으며, 정신력이나 마음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당할 수 없는 강하고 강한 마음으로 다져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일백오십 만의 신자를 이끌었던 다섯째 천사 박 장로가 강단에서, “6.25사변은 이긴자를 배출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말했는데, 그 당시에는 박 장로 자신이 고생한 것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박 장로의 입을 빌려 하 나남께서 이긴자의 길을 걸었던 일곱째 천사를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한국 땅에서 구세주가 출현 할까봐 지레 집착하고 전쟁을 일으켜 의인이 될 만한 사람의 씨를 멸절시키려고 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마귀의 음흉한 계략을 간파하고 전쟁의 환란을 이긴자를 키우는 연단으로 되레 활용하셨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의 발자취가 곧 이긴자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 한 사람의 한국청년이 물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일곱째 천사는 포로 아닌 포로생활에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진 고초를 3년 동안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고 향집으로 돌아왔으나, 며칠 쉬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뿌리치고 포로생활 때

문에 중단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서울로 가서 학교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학교가 전쟁으로 인하여 부산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찾아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대학 2학년 때 이미 육법전서를 다 통달해 버렸고 또 전쟁 중 무수한 사신을 넘으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더욱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심경의 변화로 신학대학에 편입하였습니다. 그 당시 대한신학교는 김치선 목사의 피난생활 때 부산에서 두 해 정도 분교로서 구실을 하다가 휴전협정 이후 9월쯤에 서울 본교로 복귀되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잘 아는 장로님을 만나 그 장로님의 소개로 미군 향만 경비대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 부두의 미군 통역관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는 전쟁 중이라 미국에서 많은 군수물자와 구호물자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많은 한국인 보급관들과 관계자들이 빼돌려 사사roi이 착복하기가 다반사였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유창한 영어 솜씨로 미군에게 인정을 받았습니 다. 그리하여 미국으로부터 신고 오는 군수품의 하역작업과 반출될 때의 물품을 일일이 대조하여 체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통역관 겸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부정사건이 거의 사

라져 버렸는데, 한번은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와보니 5억환이라는 거금이 방안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5억환이라면 당시 부산에서 몇몇 안가는 거부가 될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는 평소 목욕이 손뚱만치도 없는 사람인지라 그런 것에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써가지고 다음날 출근하니 아니나 다를까 한 트럭 운전수가 손뚱시계를 가둬 신고 나가면서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차를 세워 창문으로 돈을 던져주면서 “아무리 미국 사람들의 물건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시계를 빼돌린다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한국인 모두가 도둑놈이라고 할 것이 아니냐?”하고 타이르고 물건을 원위치에 돌려놓았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미군들은 “한국에도 당신같이 훌륭한 청년이 있느냐?” 하면서 감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줘, 구호물자의 원조를 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보고 전쟁 피해국에 대한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수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한국청년이 물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똑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원조하는 나라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박한수

영성의 도는 딱 21일만 제대로 하면 완성이 된다. 더도 덜도 없이 오직 21일이다. 21일만 부처님을 사모하고 놓치지 않으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21일만에 성도하기’라는 글을 쓰기로 하였다. 필자는 21일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그대로 따라만 하면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 편집자 주

## 태초에 부처님이 마구니한테 졌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도(成道)해야 인간 본연의 부처님 모습을 되찾아 궁극의 즐거움(극락: 極樂)을 영원무궁토록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인간이 어떻게 하여 인간이 되었는지 불경과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민족의 예언서 격인 유록에는 “태초에 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이 싸워서 하나님의 신이 져서 마귀가 이긴고로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였었는데 마귀의 세상으로 뒤집어 졌다(桃符神人편)”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존재로서 영원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던 부처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마구니에게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마구니에게 사로잡히는 바로 그 순간 부처였던 사람이 현재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래 이 세상은 부처님(하나님)의 세계였었는데 마구니의 세상으로 뒤집어진 것이다. 현재 이 세상은 부처님이 사람으로 변해서 병들어 죽는 마구니 세상임을 알 수 있다.

죽는 마구니 세상을 죽지 않는 세상으로 뒤집어놓는다는 말로 ‘천지개벽’이라고 한다. 격암유록에는 정도령이 천지개벽한다고 쓰여 있는데, 천지개벽의 주인공 정도령이 곧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뜻한다. 석가모니는 대반열반경에서 미륵 출현과

일체중생의 성불을 예고하였다. ‘미륵(彌勒)’이라는 칭호는 범어 ‘마에트리아(Maitreya; 자비로운 어머니)’를 음역한 것으로 성경 상의 ‘메시아(messiah; 기름부음)’와 동일하게 고대 근동의 미트라(Mitra; 광명신)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 마구니는 부처님의 눈을 통하여 침투해 들어왔다

“예수교도는 예수의 재강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운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자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大巡經 p162)”라는 강중산 선생의 말씀이 있듯이, 유교에서 기다리는 정도령이나 불교에서 기다리는 미륵불이나 기독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나 각기 부르는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유불선을 합일하는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유불선을 합일하는 생미륵부처님이 북방불기 삼천 년 만에 나타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당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축복임에 틀림없다. 태초에 부처님(하나님)이 마구니에게 사로잡히므로써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말씀도 엄청난 말씀인데, 마구니가 어떤 지혜로 부처님(하나님)을 사로잡았는지에 대해서 낱말로 밝혀주시고 또한 마구니에 의해 부처님(하나님)이 사로잡히는 장면을 그 현장에서 지켜본 장본인이 곧 생미륵부처님 자신이었다는 말씀은 팔만대장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장(秘密藏)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항간에 교외별전(敎外別傳)이라는 말이 전해졌으며 “내 일은 판박에서 성도(成道)

# 21일 만에 성도(成道)하기 <4일째>



실제 생미륵불의 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검광이 되는 무량광(無量光)

한다(道典 5편 250장)”라는 강중산 선생의 말씀이 전해졌던 것이다.

태초에 속임수에 능한 마구니는 부처님(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장(假裝)하여 부처님으로 하여금 쳐다보게끔 유인하는 데 성공하자, 부처님이 쳐다보는 순간에 눈을 통하여 그 부처님의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마구니한테 속아서 점령당하자마자 인간으로 변한 것이다. 부처님의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온 마구니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아니라 가아(假我)로 행세하고, 불성(佛性)이 되는 진아(眞我)는 ‘나’라는 주체의식의 본래자리에서 밀려나와 마구니가 조종하는 대로 마지못해 순복하다가 결국에 생명력의 고갈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생로병사의 근본비밀이다.

## 생미륵불을 바라봄으로써 마음속에 극락을 이루고 성불하게 된다

오늘날 생미륵불은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옛날 마구니가 쓰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마구니가 쓰던 무기를 뺏아가지고 초초로 생미륵불을 바

라봄으로써 바로 생미륵불의 영이 인간들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부처님(하나님)께서는 승리제단의 식구들만 구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들을 다 구원할 목적으로 생미륵불(구세진인)을 6천 년이나 가나긴 세월 동안 키웠는데, 바로 인간 몸을 입고 구원의 역사를 하게 될 생미륵불(구세진인)의 얼굴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망권세를 잡은 마구니를 재장조하는 데 있었다. 이는 옛날에 마구니가 하나님을 사로잡는 데 쓰던 무기를 역이용하는 부처님(하나님) 전략 중에 하나였다. 격암유록 새 41장에도 ‘이전기타파멸마(利見機打破滅魔)’라는 말이 있는데, ‘바라보는 순간 마귀를 박멸소탕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초초로 생미륵불(구세진인)을 바라봐야 구원이다. 생미륵불을 바라보면 눈을 통하여 생미륵불의 영이 들어와서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는 가아(假我)를 멸절시키고 바라보는 중생들로 하여금 성불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形體)를 나타낸다고 하지만 그 형체는 인형

에 불과하고, 일원상(一圓相)은 부처님의 신체(心體)를 나타낸다고 원불교의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지만(圓佛敎敎典) 교의품19), 그 원(圓) 안에 원만구족(圓滿具足)한 생미륵불의 상호가 온전히 채워질 때 비로소 영육쌍전(靈肉雙全)의 법이 나와 생·로·병·사를 해탈하여 영성의 길을 얻고 인과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미륵불(구세진인)의 상호와 바라봄의 구원 원리는 오늘날 현대 과학조차 논하지 못하는 훨씬 앞선 학문에 속한다. 예컨대 죽은 사람의 사진에는 죽은 사람의 귀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의 사진을 방안에 걸어놓고 쳐다보는 순간 죽은 사람의 사자귀신에게 씌어 죽음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거나 헛것을 실제상황으로 오인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생미륵불 조희성님의 존영사진에는 생미륵불의 분신이 붙어 있기에, 생미륵불을 바라봄으로써 곧 생미륵불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 마음속에 극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극락이 되어야 성불할 수 있다.

## 반짝이는 무량광(無量光)을 체험하면 그 부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된다

유불선의 3대 종교 가운데 선교의 경전에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불교식으로 풀이하면 생미륵불의 얼굴에서 쏟아져 나오는 영화로운 광명(光明)을 보게 되면 중생들은 생미륵불과 똑같은 얼굴형상으로 변모하여 무량광불(無量光佛)인 아미타불이 된다는 뜻이다. 즉 무한한 빛을 발하는 아미타불이 곧 생미륵부처님이다. 아미타불이 발하는 무한한 빛이 곧 감로(甘露)요 아미타(AMITA)이다. 밀교 경전에서 아미타불의 아미타는 산스크리트어 아미르타(amrta)의 속어형이라고 해석하고, 아미타불과 감로를 동일시하고 있다. 원래 아미르타(amrta)는 <죽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말이다.

실제 잠들기 전에 생미륵불의 존영 사진을 면전에 모셔놓고 무상무념(無想無念)으로 부처님의 눈을 응시하면, 분명 30분도 못되어서 반짝이는 무량광(無量光)이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며 어떤 형태론든 가피(加被)를 입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을 바라봄으로써 어떤 사람은 불성신을 받아 고질적인 중병이 낫게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입안서부터 가슴을 통해서 아랫배까지 시원하게 생수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몸이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몸이 뚱뚱 또는 은혜창과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너무 기쁜 나머지 입으로 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마구니가 은혜자로 알고 다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잘 간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21일 성도하기>를 무난히 통과하여 이 정도(正道)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에서는 “부처님을 바라보면 부처님의 마음을 본다(觀佛身故 亦見佛心)”라는 말씀이 있다. 이는 생미륵불을 바라보면 마구니의 마음이 없어지고 부처님(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 누구나 성불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박태선 기자